



요약

사설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을 잘 준비합시다.

양성 여정

마리아의 거룩한 무관심의 학교인, 마니피캣, 피앗, 스타바트.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님의 편지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대중적인 특색.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5. 영적보물에 참여.

6. 발도코 대성당과 일치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가족의 연대기

- 2024년 파티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준비.

- 일본: ADMA 탈퇴.

사설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을 잘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달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성당은 여러 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우리 마음에도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를 기리고 있습니다. 살레시오적 창의성으로 노래, 축하, 행렬, 기도, 행사, 문화, 교육 및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가 돈 보스코의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지역에서 이를 전파하며 활성화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모님께 다가와 받은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얻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많은 필요와 상황, 희망과 사랑의 결핍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단순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이 축제는 살레시오 가족 모두에게 큰 축일이며, 우리 어머니의 축일이므로 외적인 장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돈 보스코는 이 축일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살레시오 교육학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는 고해성사이며, 돈 보스코는 5월 한 달 동안 고해성사를 열렬히 권장했습니다.

150년 전, 정확히 1873년 5월 31일 밤, 돈 보스코는 기도 후에, 기숙생들에게 밤인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꿈

P.1

P.3

P.6

P.7

P.8

P.9

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하시며, 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구일기도 동안, 실제로 5월 한 달 내내 미사와 여러 기도를 통해 나는 항상 주님과 성모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매일 밤 나는 고해성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당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것을 보곤 했는데 뿔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 음! 이건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는 자주 보지만 계속 바뀌지 않고 같은 고백을 하는 거야. (여기 인용되는 것은 실제 고백의 예가 아니라 가상의 예입니다.) 연초에 불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지금도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초에 했던 불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니까.” 보스코는 이 꿈을 자신의 기도로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꿈의 세부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 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돈 보스코가 말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입니다. [MB X, 56].

돈 보스코는 구일기도 동안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로 고해성사를 잘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며, 바르고 선한 지향을 지닌다면 주님의 용서가 부족하지 않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자비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나무의 씨를 받아 심어도, 그 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사랑과 희망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화해가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의 기쁨을 주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교를 굳세게 하며, 우리가 “모든 형제”

가 되게 하며, 우리의 사도적 의미를 정화시켜 주고 항상 사명에 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부드럽고 인내로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연약함과 죄로 얼룩진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은 저희에게, 당신 삶의 귀중한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심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진실한 회개와 관대한 형제적 용서로 깨어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당신과 화해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성장하여,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을 화해의 성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돈 보스코의 초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진정한 내적 성장과 대축일 준비에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양성 여정

마리아의 거룩한 무관심의 학교인, 마니피캣, 피앗, 스타바트

올해의 양성 월별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나시오와 성녀 데레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룩한 무관심’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마리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세 가지 핵심 단어는 어머니이자 제자인 마리아의 여정을 요약하는 세 개의 동사인, **피앗**, **마니피캣**, **스타바트**,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인 말씀을 잉태하시는 피앗,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부르는 찬가인 마니피캣,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그녀의 고통받는 모습인 스타바트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순서는 ‘연대기적’ 순서이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그러나 세미나 중에 순서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날 ‘무관심’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신앙생활의 성숙한 태도에 대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우리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나타내는데 뛰어난 동사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1. **마니피캣 : 찬양하다**
2. **피앗 :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3. **스타바트 : 고통하다**

그러면 왜 **마니피캣**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시편은 찬양으로 끝나며, 심지어 고통과 간구의 외침이 가장 강력한 충격적인 시편, 성경이 우리의 입술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구절들조차 찬양으로 끝납니다. 만일 찬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편이 있었겠습니까? 성서의 한 페이지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니피캣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마니피캣이 마리아가 직접 창작한 작품은 아니지만, 언제나 마리아의 숨결과 같았고, 성서의 공통된 울림이었으며, 선과 헌신의 지평을 마리아가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원하시고, 이룩하시며,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감사로 조명되는 삶에 대한 인식, 그 모든 표현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할 때... 우리 삶의 발걸음은 그 방향과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찬양, 축복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루카 10:21) 예수님의 찬양과 감사의 정점은 수난하시기 전날- 성찬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 다가올 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하느님 사랑의 계획에 대한 완전하고 조건 없는 순명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일에는 대영광송, 알렐루야, 호산나를 일어서서 부르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의 계곡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눈물로 한방울 한방울 은혜를 구하기도 하므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경축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고, 하느님과 그 나라의 복음이 마치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실험실처럼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해방된 발걸음을 출발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니피캣의 모습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더 나아가 매일 저녁 마니피캣의 눈으로 하루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마니피캣은 복음이 되며**, 모든 사건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걷게 됩니다.

성모님의 삶은 오르막길과 험난한 어려움으로 끊이지 않는 묵주기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마니피캇의 승리의 날에만 편안한 모습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마니피캇은 너무도 진실하여 영원히 그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왕, 어머니, 자매로 부활하신 마리아는, 이미 부활하신 영광을 위한 우리의 육체적 약속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와 영광이 분리될 수 없는 순교자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가득 채우는 장엄한 분이십니다.**

2022년 7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인 제임스 웹의 이미지를 우리도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와 달의 3배 거리에 있는 제임스 웹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와 화질로 우주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도 새롭고 강하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광대 한 무위의 결과, 또는 원한다면 진화적 성취의 결과이며, 내 존재의 어느 순간도 불가능할 것임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태어난 뒤와 그 안에 있는 세대의 연결된 고리를 생각해봅시다.

마니피캇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일하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반이 되는 부활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음 받은 것’, 우리 여정의 완성은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은하계가 시편에서 인용한 것처럼 저울의 먼지 한 점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넓이, 높이,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타임머신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펼쳐질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멋진 표정으로 시작하고 매일 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것을 확인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어보십시오. 이 연습을 몇 달 먼저 해보고 이 연습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모든 연령대를 위해, **아멘.**

아멘은 라틴어 피앗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이거나 적어도 그 가까운 단어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유목 농부들의 민족으로, 특히 그리스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빈약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활력이 넘치는, 듣기도 전에 감동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유목민 목자(아브라함!)의 천막 말뚝을 가리킵니다. 말뚝이 단단한 땅에 단단히 박혀 있고 바위처럼 안정되어 있을 때 (반석 위에 있는 예수님의 집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나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폭풍이 불고 모래 폭풍이 와도 우리를 휩쓸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피앗에는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하느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믿으며, 저를 위한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믿습니다 라는 뜻이다.

누구보다도 아멘의 전문가였던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마리아의 아들에게 온전히 예라고 대답한 순간부터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필리 1,21) 눈앞에 위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었는지 그 내용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참조, 2 고린 11,16—33).

그러나 그분이 겪으셨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고 확신하시는 분이십니다.

FIAT/AMEN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과 뻑뻑한 생존 리듬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길을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니피캇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뢰의 관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그분의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멘이 가장 잘 준비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주님을 뵈었을 때, 아니면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빵을 나누고 나서(우리 자신의 떼어진 빵!) 가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때였을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히셨기에 당신 계명의 길을 달립니다”(시 118,32).

먼저 마음을 넓히지 않는다면 (마니피캣!) 트랙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경주를 시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임신 말기에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매우 긴 여정, 이집트의 피난 중에는 갓난 아기와 요셉과 함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잃어버려 찾아 헤매기도 하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무엇보다도 큰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타바트를 발견합니다.**

<스타바트 마테르>는 라틴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의 성모 마리아가**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예술과 대중의 신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잘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결승선의 리본을 끊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스타바트는 마니피캣의 모든 목소리를 근본부터 소멸시키고, 수난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온 땅에 드리운 어둠”**, 역사를 관통하며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외침,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이끕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과 어머니는 예루살렘 외곽의 해골 모양의 언덕(골고타의 아람어 의미)으로 이끈 모든 여정과



더 이상 변형 이벤트가 없습니다.

역사, 이 우주(제임스 웹 포함), 모든 생명 전체를 완성하는 곳이 바로 그 언덕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불의, 비극, 죽음의 십자가를 현양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 것,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함께! 항상!)입니다.

십자가는 스타바트이기에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이끌릴 때 부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티베리우스 치하 30년 4월 7일 금요일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날짜가 가장 정확한 날짜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옷 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자렛 예수의 사건만큼 역사를 크게 바꾸고 변화시킨 사건은 없습니다.

이 보다 더 큰 혁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결실을 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출산의 고통은 무한한 모성애를 위해 수용한 것이기에, 그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베들레헴에서 그 나이에 이제 막 태어난 아들에게 젖을 물릴 준비가 된 마리아를 피에타 상으로 조각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조각하기 위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바트는 반 마니피캣이거나 위로부터 시켜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마니피캣과 아멘-피앗으로 마음을 자라게 해야 하며,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말할 줄 알게 될 때 스타바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냐시오와 데레사와 같은 위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거룩한 무관심’**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 온갖 종류의 가난과 거칠고 폭력적인 적대감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온전히 선물하기 위해 점점 더 마음을 자라게 했으며, 그 모든 것을 자선과 온유의 강력한 훈련의 장으로 삼아, 마침내 실천적 훈련 덕분에 **‘거룩한 무관심’**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무관심이란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서, 새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섭리적인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바오로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오직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고린 13,8).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열린 마음은 ‘거룩한 무관심’이 되어 선에 열려 있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해지거나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마니피캣, 피앗, 스타바트를 지금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의 도로 표지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매일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먼저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개인기도와 묵상을 위하여

1) 하루 중에 나의 관점은, 문제와 불평에 시선을 고정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가?

2) 주님의 손 안에 나를 맡김이 가장 안전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마음에 품으신 그분의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신뢰합니까?

3) 모든 것을 스스로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욕심 없이, 새로운 하루가 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까?

이 달의 약속

매일 아침 경건한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님의 편지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대중적인 특색

살레시오의 카리스마와 사목은 청소년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과 함께 돈 보스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ADMA 창립을 통해 표현한 카리스마의 대중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신원헌장에는

“**위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돈 보스코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 계급, 도시 하층민, 이민자, 소외된 사람들,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지향에 충실한 살레시오 가족은 이러한 창립자의 우선적인 선택을 공유했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는 새로운 규칙에 특히 서민층을 위한 살레시오 사도직을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돈 보스코 가족의 헌신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삶의 의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연대의 실천과 같은 인간적이고 복음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장려하여 인간의 발전과 신앙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돈 보스코는 민중을 위한 신앙 교육을 통한 대중적 종교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복음화 교육」에서 “**대중 종교성은 (...) 특히 복음화 교육학을 통해 잘 지향된다면 풍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사랑스럽고 변함없는 현존과 함께 섭리의 감각을 강조하며 인내, 운유,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미덕을 발전시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적 차원이 진정한 복음화의 한 형태이며, 이를 장려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순례를 떠나는 사람이 개인 영성이 아닌 ‘대중적’ 영성을 실천한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제로 순례자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믿음, 삶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갑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특별한 소망과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성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환영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돈 보스코가 원했던 대로 살레시오



가족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새롭게 합시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5. 영적보물에 참여

토리노 발도코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제안하는 입회지원자 양성 과정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신심회의 영적 보물과 전 세계 ADMA의 일반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5. 영적보물에 참여

이 여정의 이전 단계에서는 신심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차원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기여보다 우리가 받는 선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심회원들은 영적 보물을 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돈 보스코의 원의대로 ADMA와 살레시오 가족 모두의 영적 보물말입니다! 이 영적보물은 특별히 대사와 전례와 기도의 열매로 세워졌으며, 신심회가 시작된 바로 그 성당인 토리노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을 뜻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대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이해를 돕습니다.

“화해의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는 실제로 지워지지만, 죄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남긴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이보다 더 큼니다. 그것은 사제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관용이 되어,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죄인에게 도달하고



그를 모든 죄의 잔여물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여 자비로 행동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 어머니 교회는 기도와 삶으로 어떤 이들의 연약함을 다른 이들의 거룩함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자의 전 생애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사는 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이 도달하는 최고의 결과인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 구원의 모든 혜택을 공유합니다.”

대사의 결과를 얻으려면, 은총을 넘어 믿음이 필요합니다.

- 1) 비록 소죄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내적 결심을 합니다.
- 2) 성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 3) 성체성사를 받습니다.
- 4)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합니다.
- 5) 신심회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명시적으로 갱신합니다.

또한 부분 대사가 첨부된 기도와 선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 보스코가 ADMA 규정에서 권장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2.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각자의 신앙과 은총의 여정이 신심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이 되며, 기도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전구가 은총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6. 발도코 대성당과 일치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조직은 개인과 단체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이므로 상황에 맞게 조직되어야 하며, 형제적 친교와 회원들의 사도적 헌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살레시오 정신에 따르면, 형식적이거나 법적인 것보다는 삶과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회원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명확하고 단순하며 공유된 몇 가지 규칙만 있으면, 이미 정해져서 수행되고 있는 규칙만으로도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DMA는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회는 토리노-발도코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과 돈 보스코께서 이곳에 설립한 프리마리아 ADMA와 긴밀한 친교를 맺고 있습니다.

ADMA 지회는 모든 SDB 및 FMA의 사목터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는 설립허가법령에 의해 SDB 관구장이 합니다. 교구, 다른 종교 기관 또는 다른 살레시오 가족 단체에서 ADMA 지회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교구 주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의 SDB 관구장이 설립합니다.

전통적으로 ADMA는 지회가 설립된 후 바로 토리노-발도코의 프리마리아 ADMA에 가입신청서를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심회의 요람과의 영적 친교의 유대를 표현하며, 전 세계 모든 신심회와의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됨의 유대는 각 지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지회: 토리노-발도코에 있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에 있는 프리마리아 ADMA에 가입함으로써 신심회의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되며, 살레시오 수도회 총장에게 소속된 영적 가족이 됩니다.

ADMA 각 지회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와 긴밀한 영적 유대로 생활하며,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창립 카리스마로 인해 실제로 ADMA는 친교의 중심이자 은총의 원천인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와 의 독창적이며 근본적인 유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리마리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와 신심회의 영적이며 역사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마리아는 각 지회들에게 역사적 유대를 돌아보고 이를 구체화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프리마리아는 연락, 방문, 다양한 형태의 의사 소통 및 정보,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지회들을 활성화하는 모든 수단을 제안하게 됩니다. **각 지역 지회들과 관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지와 의 특별한 유대로 ADMA는 살레시오 가족 중에서 토리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전통에 따라 ADMA 프리마리아의 회장과 영적활성자는 전 세계 ADMA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 차원에서 신심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합니다.**
-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를 촉진합니다;**
- **국가와 관구 차원의 행사의 초청과 문의가 있을 때 참여하고, 제안합니다.**

지안 루카와 마리안젤라 스페소

가족의 연대기

2024년 파티마에서 열리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준비를 위해 포르투갈을 방문한 ADMA 세계 지도자들



포르투갈 리스본 - 2023년 3월 - 2024년 세계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대표(ADMA)의 도움이신 마리아 세계대회 준비위원들과 만났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 ADMA 책임자들과 발도코 (토리노) ADMA 프리마리아 회원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파티마 개최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ADMA 세계 영적활성자인 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와 FMA 세계 대표인 루크레시아 우리베 수녀, 그리고 레나토 발레라, 지오반니 스카비노, 바바라 마리오, 바바라 로사 클로트, 엘리자베타 세노, 프란체스카

세데레 등 ADMA 프리마리아 발도코 회원들이다. 이들은 포르투갈 살레시오회 본부(POR) 리스본에 모였으며, 회의 말미에 게바라 신부는, 관구장 호세 아니발 멘돈사 신부와 부관구장 주앙 차베스 신부, 대회 준비팀의 안토니오 마르셀리노 신부의 지원에 감사했다.

그는 “형제애, 준비하고 알아가는 이 날들을 통해, 언제나 마리아의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 모두에게 이 만남이, 신앙과 기도의 아름다운 체험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바른 길 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는 총장신부도 참석할 예정이며,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2024년에 200주년을 맞이하는 돈 보스코의 9살 때 꿈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로 정해졌다.

일본 - ADMA 피정에 100명 이상 참가



일본 도쿄 - 2023년 3월 31일 -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 피정의 이니셔티브인 ‘쫘으로 묵주기도’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일본 ADMA 영적활성자인 엔젤 야마노우치 신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고안한 것으로,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등 5개 언어로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피정은 망토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치유를 받고 제자가 된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의 복음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초대받았다.

오후 명상 시간에는 도박 중독으로 좌절했던 삶에서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브라질 형제의 체험 나눔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그룹별 나눔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피정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ADMA에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했다.